

만엽의 식물명에 가탁하여

김완진

서울대학교 명예교수

가탁(假託)한다는 것은 일단 말머리는 거기에 두되, 생각은 다른 곳에 있음을 말한다. *mo* ‘藻’, *nire* ‘榆’, *take* ‘竹’ 같은 일본어 어사에서 출발하기에 일본어에도 관심이 없는 바 아니지만, 그에 상응하는 국어의 어형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.

1.

물(藻) : *mo*

*mo*라 읽히는 ‘藻’는 물풀의 총칭으로 담수 해수의 것을 두루 가리킨다. (혹 *me*라고 읽는 곳들도 있으나, 이런 변음은 만엽의 독법에서 종종 만나는 현상이다.) 이에 대응될 국어의 예는 ‘물’이라 하겠는데, 어말의 유음의 있고 없음이 두드러진다. 훈몽자회 草卉조 끝에 ‘藻’와 ‘蘋’ 두 글자가 배정되어 있는데, 각기 다음과 같은 주석이 붙어 있음을 본다.

藻 물조 海藻又水草 文宗御釋 말암조 初學字會同

蕨 머구리밥빙 大萍也 沈曰蕨浮曰藻 文宗御釋及字會말암빈

일단은 ‘말’이 일본어의 *mo*와 같이 물풀의 총칭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, 두 글자가 다같이 ‘말암’으로 풀이된 전례가 있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. 수초로서의 ‘마름’ 또는 열매로서의 ‘마름’ 즉 ‘菱’ 또는 ‘菱仁’은 일본어에서는 *hisi*라는 독립된 모습을 가진다. 또 현대의 국어에는 총칭으로서가 아니라 가렛과의 특정한 수초 이름이 되기도 하는 것이 ‘말’이다.¹⁾

‘말’에 대한 *mo*와 같이 유음의 유무로 특징지워지는 짝들을 찾으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.

‘살’(箭, 矢) : *sa*

*sa*를 *ya*(矢)의 고어라고 하고 있으나, 근세어 *ya*에 통하게 읽는 곳들도 있다. 가령 13권의 3330에서는 ‘箭’을 *sa*라 읽지만, 2권의 199의 ‘箭’이나 3권 364의 ‘矢’는 *ya*라 읽는다.

한편 *satuya*(獵矢, 得物矢), *satuwo*(獵夫) 등에서의 *satu* 및 그 변화형으로서의 *sati*까지를 *sa*와 같은 기원으로 보며 이 경우의 *tu*, *ti*는 국어의 ‘르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. ‘벌’[蜂]을 *fati*와 대응시키면서의 사고이겠지만, 다만 *fati*에는 **fa*라는 동반형은 없다.

‘을’(泉, 井) : *wi*

현대어의 *ido*(井戶)의 *i*에 해당하는 것인데, 현대어에서도 *inogasira*(井頭) 같은 말에서 그 단독형이 확인된다. 井頭는 옛 상수원(上水源)의 하나로 지금은 공원이 되어 있다. 만엽집에서는 ‘井’자로 적혀 *wi*로 읽혔다.

1) ‘마름’의 발달에 대하여는 李秉根 교수의 근작 논문에 자세한 연구가 있다.(1998), 「마름(菱仁)의 語彙史」, 『방언학과 국어학』, 太學社.

훈몽자회에서의 ‘말암’은 ‘芰’와 ‘菱’ 두 글자에 붙여졌는데, 협주에는 각각 ‘四角爲芰 兩角爲菱’과 ‘俗呼菱角 又呼水栗’이라 하고 있다.

신라의 지명에서 蘿井과 奈乙의 병기에서 ‘을’이 확보되거나, 고구려의 경우에도 於乙買=泉井에서 비슷한 어형이 확보된다. 그리고 淵蓋蘇文, 淵淨土의 성이 ‘淵’자를 피하여 ‘泉’으로 고쳐 쓰인 것을 알고 있거나, 일본서기에서 그것이 *iri*로 읽혔던 것은 『새국어생활』 2001 여름호에서 지적한 일이 있기도 하다. 필자는 고구려 인명에 보이는 乙巴素, 乙豆支, 乙弗 등에서의 ‘乙’도 결국 ‘淵, 泉’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추론을 한 일도 있다.

한글 문헌의 단계에 와서는 이 단어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, 어떤 방언에서도 그런 어형이 보고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, 혹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‘우물’이라는 말에 ‘움+을>우물’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.

돌(梁, 渠) : *to*(戶, 門)

우리의 鳴梁해협(울돌목)과 일본의 鳴門 *naruto* 해협[水道]의 대비에서 좋은 짝을 찾을 수 있다. 양쪽 다 물살이 급하여 소리가 나는 것에서 붙여진 이름이겠다. 일본어의 경우에는 의미의 폭이 넓어 일반적인 ‘문’의 의미까지 가지지만, 좁은 물길, 물목이라는 뜻으로 서로 통한다.

올(縷, 條) : *wo*(緒, 紘)

실 따위를 꼬아 튼튼히 한 것, 즉 纏糸라는 설명이 만엽사전에 나온다.

2.

느릅(楡) : *nire*

물론 모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사상하고서의 일이지만, (아직 그렇게까지 정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이 유감이다.) 끝에 ‘비’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짝이다. 국어에 ‘가람’(떡갈나무)이나 ‘두릅’과 같이 말음 ‘비’를 가진 나무 이름들이 더 있어 일단은 ‘비’이 있는 쪽을 기준으로 생각한다.

비름, 비를(菟) : **fīyu* > *hiyu*

늦은 판본에는 ‘비름’으로 되어 있지만, 이른바 예산본이나 동중본의 훈몽자회에는 ‘비름’ 아닌 ‘비를’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. 그러나 주기(注記)에 ‘又 쇠비름曰馬齒莧’이라고 한 데에서는 ‘비름’을 쓰고 있어 이 둘 어형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 준다. ‘비름’과 ‘쇠비름’은 식물학적으로는 거리가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으로는 서로 상관되어 있는 것이 흥미로운데, 일본어에서도 ‘쇠비름’을 *suberihiyu*라고 하여 *hiyu*와 연관시키고 있다. 일본에서는 ‘쇠비름’을 식용으로 썼었다 하는데 삶았을 때 미끈미끈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.(다만 만엽시대의 이름은 *ifawidura* 伊波爲都良.)

그런데 *hiyu*라는 말은 현대의 사전에 보일 뿐, 만엽의 기록에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, 고어사전 종류에도 실려 있지 않은 것이 기이하다. 앞에 적은 **fīyu*에 별표를 붙인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다.

혹 국어의 ‘비름’에 대하여 일본어의 *fīru*를 등장시키는 일이 있는데,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. ‘比流, 毘流, 蒜’로 적힌 *fīru*는 ‘野蒜’, 우리말로 하면 ‘달래’에 해당하는 자극성이 강한 식물이다.²⁾ ‘비름’과 *fīyu*가 대응된다 할 때에는 어말의 자음 탈락 이외에 모음 간의 유음이 y로 바뀐 것을 상정해야 하는데, 이는 ‘徐羅伐 : 徐耶伐, 駕洛, 加羅 : 伽耶’의 대비에서 상정되는 현상, 일반명사의 경우로는 ‘居老 : 騏州’에서 중세어의 ‘거유’(> 거위)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현상을 방불케 한다. 이 현상이 나타나는 조건은 아직 불명하다.

곧(處) : *ko*

*ko*가 단독으로 사용된 예는 없지만, *koko*(여기), *kasiko*(저기), *soko*(거기) 그리고 *iduku*(何處)에서의 *ko*, *ku*가 장소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다.

2) 일본의 한 고어사전에 *fīru*에 대응되는 한국말이라 하여 *pil*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본 일이 있는데, 추측컨대 훈몽자회의 ‘비를’을 잘못 옮겨놓은 것이 아닐까 한다.

돈(錢) : *tu*(錢, 文)

국어의 ‘돈’은 ‘금전’을 의미하면서 ‘금전’ 또는 ‘중량’의 단위를 나타낸다. 일본어의 *tu*는 금전 단위를 표시한다.

두루미(鶴) : *туру*

월인석보의 ‘白鶴은 흰 두루미라’의 보기를 비롯하여 유희의 『물명고』를 거쳐 현대인의 인식에 이르기까지 ‘두루미’는 곧 ‘학’이라 되어 있는데, 훈몽자회에서의 최세진의 인식은 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. 천착이 필요한 과제일지 모른다. ‘鶴’은 ‘학’이라 하고 ‘두루미’라 하지 않은 반면에, ‘두루미’는 ‘鸛’와 ‘鵠’ 두 글자에 달아놓고 있는 것이다. 이 글자들은 ‘학’을 의미하는 것들이 아니다.(張三植의 사전이 ‘두루미’라 하고 있는 것은 훈몽자회를 따른 것인가. 그는 ‘鶴’에 대하여는, ‘두루미 학, 학 학’을 보인다.) 일본의 諸橋徹次는 字彙補에 의거하여 *u*(가마우지)라 하고 있다. 그러나 ‘鸛’ 그리고 ‘鵠’를 ‘사드새’라 한 것은 최세진 쪽이 옳다. 일본 사람들은 ‘鵠’를 ‘가마우지’로 보아 *u*라 읽어 오고 있으나(만엽 이래로), 모로하시도 그 뜻을 가람조 즉 ‘사다새’로 하고 있다.(지금에 이르는 펠리칸이 이것이다.) 최세진이 ‘가마오디’로 한 것은 ‘鸛’와 ‘鵠’다.

만엽에서는 *туру*로 가차된 예가 있어 ‘학’을 뜻하는 *туру*라는 명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나 정작 ‘학’을 뜻하는 데에는 *tadu*만이 쓰였다 한다. 이른바 가어(歌語)에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.³⁾

가담(縷) : *kata*(條)

현대어에서의 ‘가닥’은 꼭 실 같은 것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좀더 넓은 의미로 쓰인다. 한편 일본어의 *kata*는 넝쿨 같은 것을 대상으로 쓰는 말이었다.

3) ‘구레’(楸)와 *kurumi*(胡桃)의 짝이 성립된다면 ‘두루미’의 경우와는 반대로 여분의 *mi*가 일본어 쪽에 있게 된다. 이 *mi*는 혹 *mi*(實)인가. 미심하다.

국어 어형의 끝자음이 일본어 쪽에 보존되어 있는 것은 원래 그 자음 뒤에 모음이 있었던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한다. 예컨대 ‘곰’(熊), ‘섬’(島), ‘섭’(薪), ‘밭’(原)에 대한 *kuma*, *sima*, *siba*(柴, 芝) *fara*(原) 같은 경우를 생각하는 것인데, *tabari*(把, 束)에 대한 ‘다발’을 추가할 수도 있겠다. 만엽에서의 *siba*는 짧은 ‘잔디’ 즉 ‘小芝’ *kosiba*가 아니고 이른바 *chikarasiba*로서 높이 50센티 정도로 자라는 잡초를 이른다.

3.

대(竹) : *take*

모음 사이에서의 자음의 탈락을 생각하는 표본으로 이 짝을 제시한다. 모음면에서는 국어의 ‘되’(山)에 대한 *mure*(*e*로 끝난다는 점에서)에 필적한다. 이 *mure*는 순수한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의 수용으로 생각된다.(일본어로는 *yama*가 정격.) 한국어 지명을 읽는데 쓰인 어형이며, 규수(九州) 등에서 지명 혼독에 보인다 한다.

가치(鵲) : *kasasagi*

에도시대의 학자 新井白石(아라이 학세키)이 그의 『東雅』에서 일본서기의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어의 차용으로 생각한 것은 합당한 일이라 하겠다. 신라의 사신이 까치 한 쌍을 일본 조정에 선물한 것이다. 일본에서의 까치 분포가 규슈 북부에 쏠려 있다는 것은 시사적이다. *kasasagi*의 *-sagi*가 일본 사람에게서 *sagi*(鷺)를 연상시켰겠는데, 그래서인지 지금은 *kasagarasu*라고도 한다.(*karasu*는 가마귀.)

‘가치’라는 어형만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여분의 것인 것만 같은 *kasasagi*의 *gi*가 우리에게서 고맙다. 『계림유사』에서 ‘鵲曰渴則寄’의 ‘寄’를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.

괭이(鋤) : *kufa*

농기구 이름이다. 현재는 ‘괭이’이지만 중세어는 ‘광이’이다, ‘*고방이’ 또는 ‘*고방이’ 같은 선행형이 상상된다.

주(2)에서 언급한 일본의 고어사전에서는 우리의 ‘호미’를 *kufa*와 같은 기원의 것이라 하고 있으나, 의미나 어형에서 거리가 있다. ‘괭이’나 *kufa*나 자루가 직각으로 꽃히는 것이 특성이다.

훈몽자회에 ‘鋤’를 비롯한 네 글자가 ‘호미 서’ 등으로 적혀 있는 것에 의존한 것인 듯하다. 일본에서는 *kuwa*, *suki* 등으로 읽히는 글자이다.

자훈(字訓)을 액면만 가지고 대비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한다. 가령 일본에서 *kuwa*를 위하여 잘 쓰이는 ‘鋤’자의 경우 훈몽자회에서는 ‘삶 초’, 장삼식에서는 ‘가래 초’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다.

고래(鯨) : *kudira*

이번에는 ‘ㄷ’의 차례다. 우리의 ‘바늘’(針)에 대한 *fari*의 경우와는 처지가 반대다. 거기서는 일본어에 ‘n’의 탈락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.

고(琴) : *koto*

한 현안(懸案)을 제시하는 심정으로 이 짝을 내놓는다. 현재의 우리에게 는 ‘가야금’과 ‘거문고’의 두 종류가 전하고 있으나, 일본의 기록에는 신라금과 백제금의 존재도 알려져 있어 종류는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. 현악기로 넓게 보면, 琵琶, 瑟, 琴도 같은 부류에 든다 할 수 있다.(일본에는 5현의 화금[和琴 *yamato koto*]가 있었다 한다.)⁴⁾

일본어의 *koto*를 기준으로 할 때 *t*가 생략되어 국어의 ‘고’가 성립되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. *to*가 생략되었다든지, 또는 거꾸로 첨가

4) 요즘 사전에서 ‘가야금’은 옳고 ‘가얏고’는 잘못이라고 하며, 또 거꾸로 ‘거문고’는 맞고 ‘현금’은 잘못이라고 배척하는 것은 전후가 맞지 않으며, 또 너무 각박한 처리라 할 것이다.

되었다든지 하는 생각을 여기서는 하지 않는다.

모음간에서의 ‘ㄷ’의 탈락에 대해서는 다행히 국어사 자료에 그 유례가 잘 확보되어 있기에 이런 사고를 하는 것이다. 계림유사의 ‘一曰河屯’과 향가에서의 ‘一等’의 존재는 ‘훈’의 선행 형태가 *‘흐든’과 같이 ‘ㄷ’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해 준다. 같은 자료에서 확인되는 ‘두불, 수불’의 ‘ㅂ’ 또는 ‘ㅍ’보다 더 생명이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.

언어는 놀랍게도 오래 같은 모습을 유지해 내기도 하지만, 가다가는 상상 밖의 표변을 보이는 일도 있다. 가령 돌궐 비문에서의 *ädgi*가 현대 터키어의 *iyi*(‘좋은’의 의미의 형용사)의 선행형인 경우와 같은 것이 그런 예일 것이다.